



# 광남일보



조간 제7984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음력 10월 23일)

## 8년만에 민간 주도 ‘전남 해상풍력시대’ 열었다

SK E&S·덴마크 CIP, 신안 자은에 96MW 조성  
5월 상업운전 돌입...에너지신산업 전환 가속화  
2·3단지, 2027년 12월 착공·2031년 12월 준공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 상업운전에 들어간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11일 신안에서 준공식을 갖고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 토마스 위베 폴스 CIP 아시아태평양 대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정부·지자체·유관기관·발전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기업인 CIP가 87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96MW 규모 발전단지다. 10MW급 터빈 10대가 설치됐다. 2017년 발전사업 허가 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8년 만인 지난 5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은 신안 집적화단지에서 각각 399MW 규모의 전남해상풍력 2단지와 3단지 조성(2027년 12월 착공·2031년 12월 준공 예정)을 추진 중이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최초 순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상업운전에 성공한 사례로,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량 35.6GW 중 22.2GW(62.4%)를 보유한 국내 최대 해상풍력 중심지다.

올해 4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인 3.2GW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다. 10월에는 신안집적화 단지 0.5GW 확대와 3.6GW 규모의 진도 집

전남 해상풍력 사업 계획			
사업명	1단계	2단계	3단계
위치	자은도 해상	자은도 해상	자은도 해상
설비용량	96MW	399MW	399MW
착공	2023년 3월	2027년 12월 (예정)	
준공	2025년 5월	2031년 12월 (예정)	

적화단지 지정도 신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그룹이 해남 화원산단에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 투자협약을 하는 등 민간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오픈AI와 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삼성SDS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전남 전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신재생에너지와 AI 산업 분야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민간 주도 최초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며 겪었을 여러 규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업운전을 성공한 발전사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신안에서 추진 중인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도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돼 소방대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는 옥상층인 2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되며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1명 사망·3명 매몰

2층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 지하층까지 무너져

엷힌 철근·콘크리트 잔해에 구조·수색 작업 난항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매몰된 작업자 4명 중 1명(40대 미장공)을 구조했으나 사망했다.

▶관련기사 8·9면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붕괴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는 모두 97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이 중 4명이 구조물에 매몰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매몰자 중 옥상층에 작업하고 있던 미장공 A씨(47)를 구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

국 숨졌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나머지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2명의 위치는 미확인 상태다.

피해자들은 철근작업자, 배관보온작업자 등 하청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옥상층인 2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후 2시 35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

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중앙119구조본부 등 119구조견을 투입했으며, 장기수색 대비 재난회복차출동 등을 조치했다.

하지만 무거운 철골 구조물을 크레인 등으로 들어올려야 해 구조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굴삭기 등 중장비도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백경민 서부소방 현장대응단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최초 붕괴 지점은 옥상층인 2층”이라며 “지하 칸이 무너진 것은 하중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 옥상을 지지하는 동바리나 지지대가 없었으나 지지대 없이 공사할 수 있는 특허받은 공법”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찰청과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 대표도서관은 광주시가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516억원(국비 157억원·시비 359억원)을 들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구일종합건설과 공동공사였던 흥진건설의 모기업인 영무토건의 법집행과 예산 문제 등으로 같은 달 13일 공정을 66%에서 공사가 일시 정지됐다. 공사가 정지된 지 3개월여가 지난 올해 9월 25일부터 구일건설의 단독시공으로 공사가 재개됐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